

2018-1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개선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개선 방향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강조하고 국가수준에서 이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컴퓨터 기반의 차세대 학력평가 2.0 (Assessment2.0: “Next-Generation”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s)을 도입하여 미래지향적, 실용적, 역량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PARCC(Partnership for the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와 SBAC(Smarter 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를 중심으로 공통핵심성취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 기반한 고등정신 능력과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비교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도 문제해결력, 글로벌 역량 등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201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해 행복한 학습을 구현하는 것을 주요 비전으로 삼았다(김경자 외, 2015; 온정덕 외,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우리나라 교육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제로, ‘교육의 질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 및 변화된 내용을 반영한 평가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평가 방향을 살펴보고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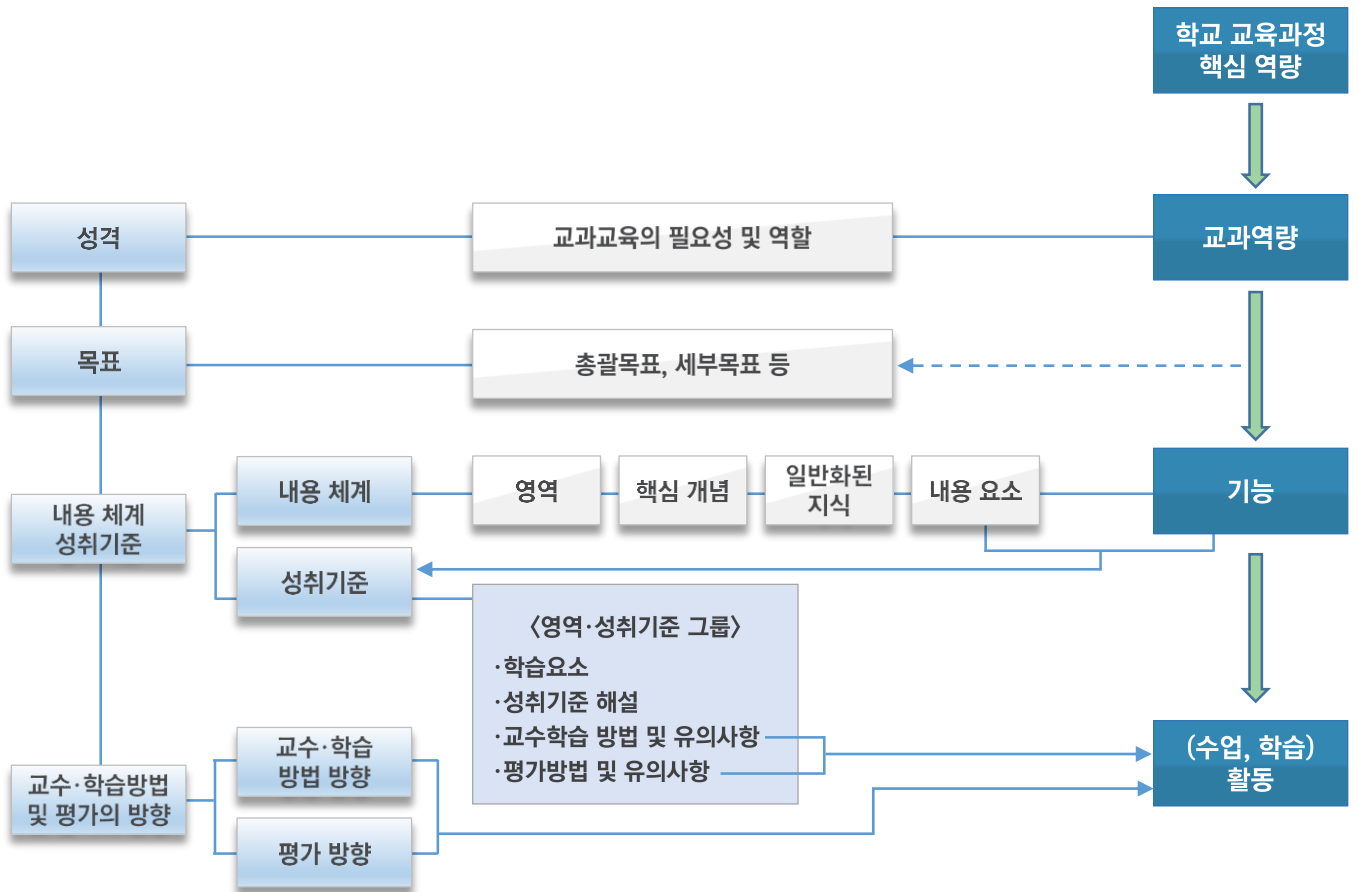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교육부, 2015. 9. 2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설정한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할 활동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총론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은 교과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범교과적인 성격을 띤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과 함께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인 교과 역량을 설정하였다. 핵심역량은 그 자체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학습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핵심역량은 교과 역량이 제대로 개발되어야 발달될 수 있는 것이고, 핵심역량은 교과 역량을 아우르며 조절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1]과 같이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엄선하여 지식과 기능은 ‘내용 체계’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의 결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수행)을 성취기준으로 진술하였다.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개념은 지식의 한 부분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일반화된 지식은 학교급을 관통하여 학생들이 배워야 할 원리에 해당하며 교과가 기반하는 학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핵심 개념과 원리를 찾아가도록 사고 기능 및 탐구 과정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 내용 체계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을 학습자가 배웠다면 어떠한 수행 혹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지, 학습의 결과로 학습자가 알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성취기준으로 진술하였다. 즉, ‘내용 체계’에서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진술하였기에, 성취기준이 내용기준이 아닌 수행기준의 성격을 띠게 된다(온정덕 외, 2015). 따라서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의 결과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진술함으로써 역량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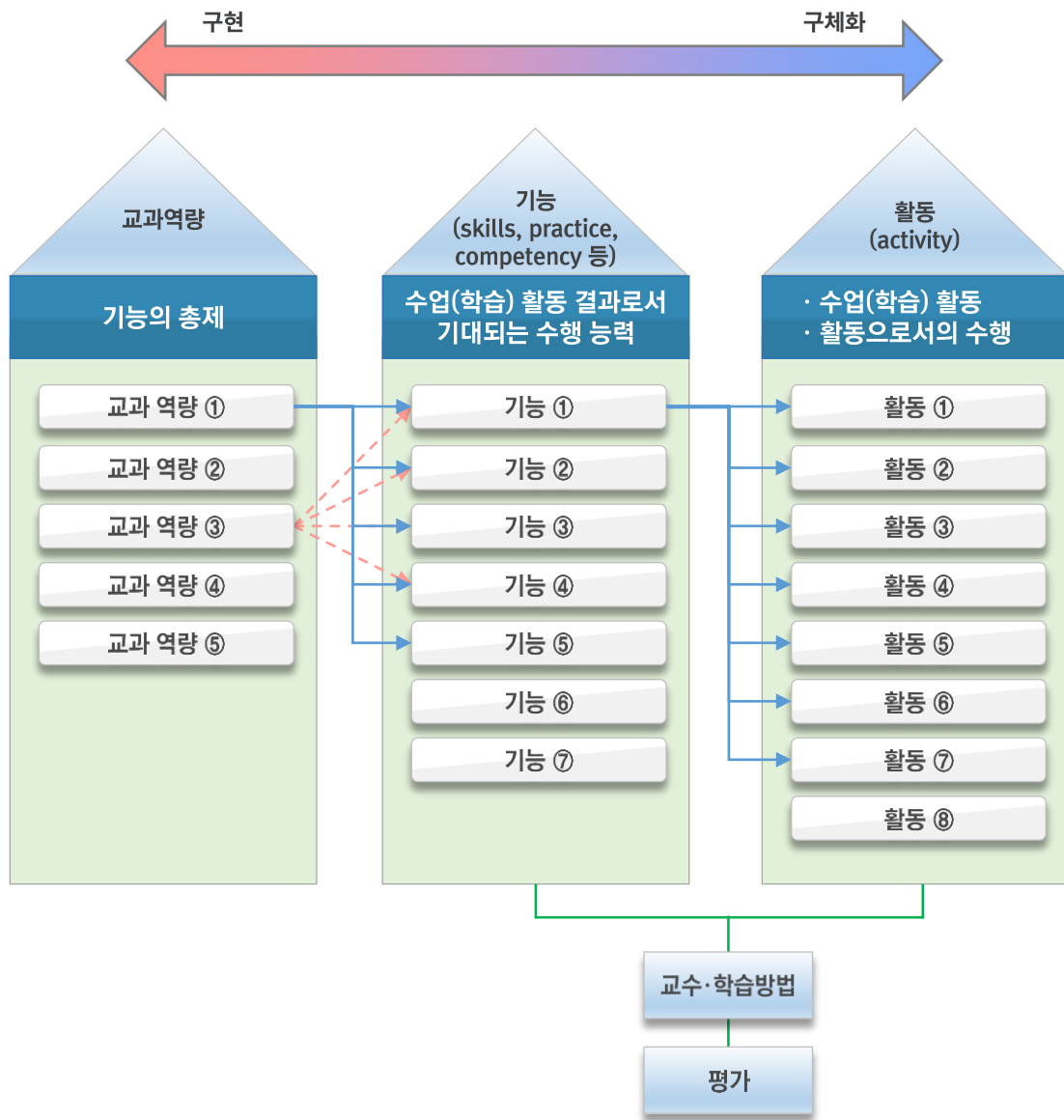


출처: 이광우 외(2015, p. 17).

[그림 1]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방향

이미경 외(2016)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2]는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시사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방향을 ‘교과 역량을 반영한 평가’,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그리고 ‘성취기준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 평가’로 정리하였다.



출처: 교육부(2015, p. 26)

[그림 2]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구조

(1) 교과 역량을 반영한 평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목에서 지향하는 교과역량을 제시하고 교과역량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안을 구안하였다. 또한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로 ‘기능’을 제시하였다. [그림 2]와 같이 「교과 역량」 ↔ 「기능」 ↔ 「(교수·학습) 활동」의 관계와 구도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과 역량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은 ‘기능’과 ‘활동’으로, 이 ‘기능’을 기르고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 평가가 설계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2)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을 구체화한 기능을 제시하고 이 기능을 교과 내용요소와 결합시켜 성취기준을 진술함으로써 핵심역량을 반영한 수행기준을 보다 강화시켰다. 이를 통해 교과 역량 반영 수업이 별도의 특별한 수업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평가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계획,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평가는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것에 대한 교육 목표 도달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학습 후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나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일회성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3) 성취기준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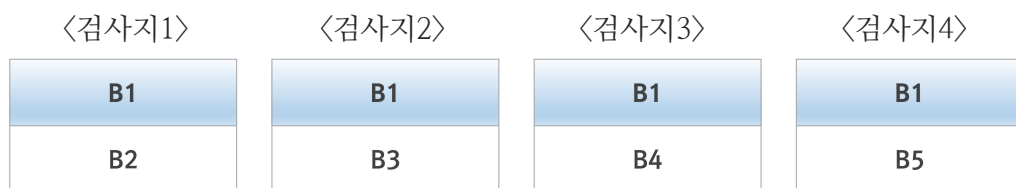
[그림 2]를 보면 하나의 교과 역량이 여러 기능(성취기준에 제시한 기대 수행 능력)과 관련되고 또한 한 가지 기능이 여러 활동과 연결된다. 따라서 교과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평가를 통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량과 지식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인지적 측정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역량의 본질을 고려할 때,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를 넘어선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즉, 획일적인 지필검사를 벗어나 학생의 실제 역량을 다양한 대안적, 질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사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평가 지침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선택지에서 정답을 택하는 지필평가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수행할 수 있는 평가인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 방향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6개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역량들을 재설정하고 그 역량들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는 역량평가를 중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표방한 역량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총론에서 제시한 범교과적 역량을 반영하는 것과 교과 역량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제시된 범교과적 역량은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것으로, 교과 학습을 통해 성취될 수 있으므로 교과 역량이 제대로 개발되어야 발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과별 역량을 충실히 반영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과 원리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과정과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그 수업과 평가의 연계 혹은 일체화를 강조함에 따라 수행평가를 근간으로 한 과정 중심 평가 확대를 표방하였다.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 한국의 K-CESA,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역량에 대한 개념 정의에는 대부분 ‘지식, 기능, 태도’의 3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능과 태도 요소에 대한 측면을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수행이나 사상(事象)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며, 지식의 경우에도 관련 역량들에 대한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지필평가의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확대하고 지식의 실제성을 높이기 위한 수행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교과별 평가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수행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제의 개선을 꾀해야 할 것이다.

교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업성취도 평가보다 많은 문항이 필요하고 풀이 시간도 더 필요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의 부담을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교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구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3]과 같은 행렬표집 설계를 적용한 검사지 구성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문항 수는 증가하되 개별 학생에게 할당되는 문항 수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 교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한 검사지가 아닌 다수의 검사지 유형을 사용하게 되어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표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그림 3] 행렬표집 설계를 적용한 검사지 구성 예시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문항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서술형 평가나 다양한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 결과를 수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 1].
- 교육부. (2015. 9. 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김경자, 곽상훈, 백남진, 송호현, 온정덕, 이승미, 한혜정, 허병훈, 홍은숙, 황규호.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온정덕, 김경자, 박희경, 홍은숙, 황규호.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초등학교) 개발 연구. 교육부.
- 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백경선, 온정덕, 소경희, 양일모, 김경숙, 이미숙, 김창원, 박병기, 모경환, 구정화, 진재관, 박경미, 곽영순, 진의남, 서지영, 이경언, 박소영, 임찬빈.(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9.
- 이미경, 정영근, 권점례, 이근호, 김희경, 이주연, 이명애, 가은아, 김현수, 박은아, 박진동, 김현경, 진의남, 김기철, 이경언, 양윤정, 주형미, 백경선, 김경훈, 장호성, 이근님, 한혜정, 서민철.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6-2-1.

이 글은 “이명애, 동효관, 박인용, 김완수, 서민희, 정혜경, 김경주, 강민경, 장의선, 성경희, 임해미, 김성경, 배주경, 김소연, 이재봉, 박지현, 양길석, 강태훈, 신영준(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17-8”의 일부내용을 재구성하고 추가한 것임.